

수기

手記 쓰기



권태하 (작가, 검교공파 33世)

아는 사람이 나를 소개해 주었다 고 하면서 며칠째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달라는 사람이 있었다. “제가 뭘 좀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려고 선생님 집 근처로 가겠다” 는 것이었다.

나이 많은 노인음성이야 커피 값을 아까려고 그러시나 싶어 주민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시간에 그리로 갔다. 역시나 예상대로 나보다 높은 영감님이 허름한 잠바차림으로 서 있었다.

마침 주민센터 옆에 내가 봉사하는 복지관에 쉼터가 있기에 그리로 모셨다.

“말씀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었다. 영감님 표정에 미안함이 짙게 배어 있어서 사무적인 말투로 부담감을 덜어 드리고 싶어하였다.

“저어...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이번에 인구주택센서스 조사원을 했는데요, 소감문을 응모하려는데 누가 그러는데 권선생님이 그 방면에 흰 하시다고...” 하기에 얼른 말을 끊고

“소감문이라든 조사할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나 후 기쁨이 따랐던 일이 있으면 쓰고, 있었던 일, 느꼈던 것을 사실대로 느낌대로 진솔하게 쓰시면 그게 소감문이지 남이 대신해서 써드릴 문제도 아니잖아요?” 했더니

“그야 당연히 제가 써야지요. 하지만 요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 천편이 응모할 텐데...”

“물론 요령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일단 접수를 따고 들어가야 하고 또 글 도입부에 심사위원들 관심을 유발하는 실마리가 보여야 하고, 맞춤법이 딱 떨어지기도 해야 하고...그런 게 부족하거나 안 되면 수천 편이 올 때는 앞부분만 대충 읽어보고 그냥 던져버리곤 하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저가 뭘...직접 쓰셔야지요. 하여튼 이렇게 만났으니 조사하면서 겪은 이야기나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영감님은 그때서야 안심이 되는 듯 얼굴에 화기가 들며 지난 보름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국가에서 하는 인구통계조사 조사를 하기 위해 6번을 가서 만난 사람도 있고, 그나마 문을 열어주면 좋는데 아파트 현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문전 박대로 돌려보내는 집들이 허다했다고 한다. 아파트 현관문에는 내다보는 구멍이 있어 나이 많은 영감님이 바깥에서 사정을 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도 젊은 여성들마저 아끼 깨운다고 다음에 와라, 바쁘니 다음에 와라, 침달로 서운하더라.

하지만 영감님은 은행원출신이었다 관계로 조사업무를 놀던 물에 들어간 물고기처럼 신명이 나서 일했다고 하셨다. 물론 애플 먹는 가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다과도 대접하는 가정도 여러 집이 있었다고 한다.

“혹시 사정이 딱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집은 없었나요?” 하며 내가 물었더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반하지 하 셋방에 의외로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경로당에도 왕따를 당해 못 간다는 말이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어떤 집을 갔더니 반하지 2칸짜리 방에 8식구가 사는데 30대부부가 조그만 아이들이 6명인데 애들이 여기 저기 훑어다녀서 어수선 하기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젊은 엄마가 약간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럼 어떡해요?’ 하면서 해맑게 웃는데 정말 순수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 하셨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전박대 푸대접도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서럽지 않습니다. 애먹었던 사람들 이야기와 가난한 사람들 딱한 사정이야기를 쓰시고, 반하지 2칸에 어린 육남매와 그러나 하느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전진스레 웃던 젊은 엄마의 아이들에게 영감님이 금년 성탄절에는 내 비록 산타할아버지 복장은 못 갖추더라도 성탄케이크 선물이라도 사주고 찾아 가겠다는 마음의 가슴에 남겨두었다고 쓰시면서 아파트에서 문전박대 하는 사람과 여섯 아이를 낳고도 해맑게 웃는 젊은 엄마를 비교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였다고 끝맺음 하시면 좋은 글이 될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

영감님은 내 어드바이스에 대만족인 표정이셨다. 나는 “주님, 제게 글재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나왔다.

東厓 權憲祖 翁 별세

前 KBS 방송곡에 ‘人間時代: 父子傳 權憲祖 翁’으로 여러차례 방영되었으며 權門의 한학자인 東厓 權憲祖 翁(봉화선돌마을, 검교공파 34世)께서 지난 12월 1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權公은 한학과 예법에 통달했으며 남다른게 孝를 중시하는 표본으로 孝子로 孝行을 실천하며 ‘선비의 길’을 청빈하게 살아왔다.

15일 유림파묵, 16일은 대중회 향파, 문파목을 했으며 지난 12월 17일 5일장으로 조문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복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입석선영에 안장 하였으며 유족으로 3남(東載, 東舉, 東泰)이 있다.

또한 지난 12월 26일 오후 8시 ‘KBS 일요스페셜’ ‘아버지의 집’이란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근래에 보기도 문 효행이라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종친회의 의미와 그 기능

■ 東雲 권혁용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친목을 꾀하기 위하여 이론 모임을 화수회(花樹會) 또는 종친회(宗親會)라 한다. 종친이란 원래 임금의 부계친척(父系親戚)을 일컫어 오다가 후일에 한 일가로서 유복친(有服親)안에 들지 않는 일가 붙이를 종친(宗親)이라 하고 종친 끼리 모여서 하는 모교지를 종친회라 하게 되었다. 종친회라 하면 오늘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생경(生硬)한 느낌과 함께 자칫 시대착오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도 없지 않으나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사람마다, 집안마다 성씨(姓氏)를 가지고 종친이란 이름으로 이를 지키며 발전시켜왔다. 종친회에는 중앙종친회가 있고, 그 밑에 파벌 또는 지역별종친회 또는 화수회가 있다. 용비어천가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좋은열매를 많이 맺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르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뿌리를 모르는 나무가 되어가고, 근원을 모르는 샘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의외로 자신의 뿌리와 선조에 대하여 모르는 이들이 많아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를 알고 자기의 근원을 바로 알 때 긍지와 자부심이 생김 더덕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책임질 줄 아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뿌리”라는 낱말이 낯설지 않게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이는 어떤 의미이든 자아(自我)의 근본

을 분명하게 알고 찾자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다. 뿌리! 그렇다 뿌리를 근간으로 하여 천지만엽(千枝萬葉)의 혈연을 찾아 조상의 만세에 빛나는 업적과 유훈을 그리고 순수한 미풍과 예속(禮俗)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전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使命)이 아닌가 생각된다. 혈연중심의 단일민족임을 자랑해 오던 우리 민족이 오늘 날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치가 형성되어 앞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사는 이민자는 현재 15만4천명이나 된다. 그리고 초.중.고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 가정자녀는 42,676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말과 글이 서툴러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뿌리를 알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즉 성씨와 조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나 한 사람의 외판 개체(個體)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지엽(枝葉)이며 연결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조상 전래의 유훈을 받들어 근간을 배양하고 그 지엽을 올바르게 육성하여 보람있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어느 누구나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각기의 성씨를 갖고 있으며 각 성씨별로 종족(宗族)의 역사를 갖고 서로 융화하며 협동 발전하여 왔다. 또한 성씨의 성장과정은 문화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치적,사회적,심리적 역할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들이 처

음 만나면 오래 통성명(通姓名)부터 하는 것은 동.서양 사람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사람들에 비해 훨씬 번거롭게 마련이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약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 그에 비해 우리의 수인사(修人事)는 자랑스런 점이 있다. 상대방이 종사인 경우 본관을 따지고 항렬을 비교해 보기도 한다. 다음으로 파(派)를 따져 고향마저 알게 되며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상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씨족관념과 성의 의식이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 호적에 본관을 적어 부계혈통을 밝힌다든가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터부(taboo) 한다든가 다투어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 한다든가 하는 일이 그 단계적인 표현이다. 특히 조상숭배사상과 애족사상이 강한 우리들은 성씨를 통해 선조들의 유현(遺賢)한 여운(餘韻)을 느끼고, 먼밀히 내려오는 가풍(家風)의 맥락을 더듬으며 조상의 업과 체취를 느끼는 동시에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이런저런 사항들을 상고 할때 오늘 날 세계가 국제화 시대, 정보화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사회 그리고 다문화 가정사회에서도 성씨를 중심으로 한 종친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뿌리를 중심으로 한 미풍양속의 전수,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 이를 통한 국가사회의 발전 이것이 종친회의 존재의의라 하겠다.



우당 권찬혁 본회부회장, 회고록 증보판 발간



‘행복하고 보람있게’란 좌우명으로 생(生)을 진지하게 추구해가고 있는 본회부회장 우당 권찬혁씨(78·경남산청·복야공파 감정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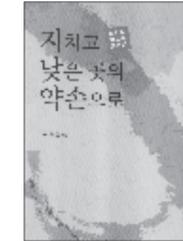
36世)가 ‘지치고 낮은 곳의 약손으로’란 제목으로 ‘권찬혁 회고록 증보판’을 지난 해 11월 5일 하나인쇄(주)으로 발간했다.

권찬혁 부회장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556번지에서 호석 응과 영월염씨 성애여사의 사이에 목자로 태어나 성균관대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고려인삼전매지청에 근무했으며 이어 현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에서 한양약국과 농원을 경영하고 있다. 찬혁 씨는 단계초등교 재학시절에 철봉체조를 좋아해 철봉에 자주 매달려 놀다가 철봉 받침

대에 새겨진 기증자 ‘정호덕 前 신등면장 증’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아홉살 때 가슴에 새겨두었던 그 다짐이 씨의 70여 평생의 지표가 되었으며 이에 인생 최대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람있는 일을 하려면 항상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철봉대에서 얻은 인생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급한 회고록 증보판에 술회하고 있으며 또한 남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내겠다고 결심하고 오늘까지 70년을 실천하며 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와의 이속을 지키기 위해였으며 이제 약속을 지켜서 우당 선생님의 인생 최대 목표의 큰 한 점의 흔적을 찍게 되었다.

이리해서 우당 찬혁 씨의 ‘삶’의 ‘기록’은 지난 2007년 11월 25일 회고록 초판시에 본지에 1차 수록을 했으며, 이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주요 부분만 추려 헌성, 기증, 관계만 소개시켜 준다.

▲91년 : 신등중고등학교 도서 100여



산업비 ▲97년:9대 조고 휘 수무묘소 치 산업비 ▲2000년:안동권씨 중앙종친회관 건립기금 1억원 헌성 및 성균관대 권찬혁 장학기금 1억원 헌성 ▲2003년:성균관대 발전기금 1000만원 헌성 ▲06년:안동권씨 남재공후손 재전도 및 남달당 건립(산역비 1억여원) ▲08년:성균관대 제1호 약대 졸업장(전교 1026호) 약대 전시관 기증 및 11대조고 남재공 휘 두점 묘소 입비 및 10대조고 휘 시형 묘소 입비 ▲09년:안동 권씨 아시조 남중공 휘 인행 이단사업 기금 1000만원 헌성 및 안동권씨 남재공 소 증중 기금 1000만원 헌성

권 기증 ▲94년:13대조고 충강공 위토당 750평 헌성 ▲95년:8대조고 가선대부 오담공 휘 필칭 묘소 치산업비 및 증조고 죽파공 휘 덕용묘소 치 산업비 ▲2000년:안동권씨 중앙종친회관 건립기금 1억원 헌성 및 성균관대 권찬혁 장학기금 1억원 헌성 ▲2003년:성균관대 발전기금 1000만원 헌성 ▲06년:안동권씨 남재공후손 재전도 및 남달당 건립(산역비 1억여원) ▲08년:성균관대 제1호 약대 졸업장(전교 1026호) 약대 전시관 기증 및 11대조고 남재공 휘 두점 묘소 입비 및 10대조고 휘 시형 묘소 입비 ▲09년:안동 권씨 아시조 남중공 휘 인행 이단사업 기금 1000만원 헌성 및 안동권씨 남재공 소 증중 기금 1000만원 헌성

〈편집위원 : 권오복〉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권오섭 총재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제36대 총재 권오섭씨(37, 청송, 동정공파 35世)는 경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현 청구식품 대표, (주)청구푸드시스템 대표이사, 前 대구청장단회장, 현 대구종친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문사와 대구지역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는 (120개 클럽, 회원 5,157명)으로 ‘행동하는 라이온’ 구호로 일취월장해 가고 있으며 ▲재단법인 라이온스 대구장학회 운



영(28억5천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연간 3만여명 지원, 2억5천만원) ▲356-A지구 라이온스 시력보존센터 설립(대구 파티마 병원 설립,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

성원에 감사합니다	
회장단회비	
▲권경섭(부회장)	100만원
▲권봉도(부회장)	100만원
▲권용기(부회장)	100만원
▲권시훈(부회장)	100만원
▲권영길(부회장)	100만원
합계 500만원	

바로잡음	
본지(2010년 12월 1일자, 제426호) 1면 시·아조 추향제 봉행란에 辛卯年 春享時 시조태사공 수임, 權五壽(73)를 權五銖(83)로, 동정공과 증무위원 누락자에 權泰元을, 부호장공과 증무위원 權五卓을 權五貞 씨로, 또한 3면에 문충공, 문경공, 안숙공 추향제 봉행란에 추밀공파 휘 수평을 守平으로, 복야공파 15世 司率正公은 子候: 中門 祚候 重의 孫 司率正公이며, 5년 17世紀의 政治社會의 狀況과 晚悔(만회)를 (만회)로 각 바로잡습니다.	

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사업) ▲356-A지구 연간봉사 사업비(65여억원)로 사회봉사에 앞장서면서 소외계층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봉사자의 길을 걷고 있다. 오섭총재는 前 국제라이온스 대구영풍 라이온스 클럽회장, 산악회장,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현 (사)산림보호협회 중앙회부회장, 대구시 장애인신문사 사장, 대구시 남구 생활체육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업으로는 ▲미국(빈민촌에 우물파기) ▲캄보디아 다케오주와 MOU 체결 등 국내외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꾀할 전도 유망한 인물로 부각되어 가고 있다.

가족으로 부친 權海日씨 모친 韓순옥 여사 사이에 6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났으며 슬하에는 임명희 여사 사이에 남매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053)-763-1009

〈권오복 편집위원〉

稅務士 權九文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호
TEL:2066-9741~4 / H.P : 011-307-2443 FAX : 2066-9745

마포종친회 1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 「1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월 27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실링) : 02)702-5047, 011-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6번출구→공덕역거리→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우가촌(실링)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335-1085, 010-3796-6980

2011년 1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